



## 가락국의 상징은 쌍어문(雙魚文)

서기 1세기 때 한반도 동남 쪽 김해 지방에서 일어난 가락국은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5백 년간 존재하던 나라였다. 나라 이름도 가락국(駕洛國), 가라국(可羅國), 가야국(加耶國)으로 변하면서 철의 생산, 국제무역 등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던 세력이었다. 지금도 김해시에 있는 수로왕릉과 구지봉 자락에 수로왕비릉이 남아있다. 더구나 수로왕이 한국 최대의 성씨 집단인 김해김씨의 조상으로 숭앙되고 있어서 그들에게 수로왕릉은 성지(聖地)로 되어 있다.

### 수로왕릉에 새겨진 쌍어문

수로왕릉의 삼문(三門)과 안향각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 보는 쌍어문(雙魚文) 형상이 그림 또는 조각으로 남아 있어서 가락국 당시의 어떤 사상적 상징이었다고 생각된다. 1세기 때 한반도에 있던 다른 고대 국가에는 국가의 상징이 없다. 유독 가락국의 쌍어문만이 국기가 없던 시대에 국가 상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쌍어문이 수로왕릉뿐만 아니라 가락국의 영역이었던 김해 은하사, 경상남도 일대의 계원암, 영암사지 등에 남아 있고 현대에도 김해지방의 민가에서 민속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쌍어문은 가락국 시절의 국장(國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락국의 쌍어문은 그림이나 조각인데 모두 채색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쌍어문들의 채색이 세월 풍상에 의하여 퇴색하면 건물 관리자들이 새로 칠하고, 건물 자체를 고칠 때 쌍어문의 모습이 변형된다. 그래도 그 자리에 다시 쌍어문을

그려놓거나 새로 조각한다(사진 1, 2) 도대체 쌍어문은 후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반복해서 새로 만들까?

### ‘하황옥’은 픽션?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있다. 서기 48년 7월 27일, 붉은 돛을 단배가 도착하였다. 배에서 20여 명이 내렸다. 그중 한 여인이 김수로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된다. 여인이 자기를 소개한다. 저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 이름은 황옥, 나이는 16세입니다.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 名黃玉 年二八矣.

지구상에 아유타라는 지명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태국의 아유타야인데 1350년 건립된 도시국가라서 가락국 시대인 서기 1세기와는 관련이 없다. 또 하나는 서기 전 6세기 때 생겨난 인도의 아요디아이다.

그들 사이에서 많은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서 오늘날의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조상이 되었다. 이 기록은 사람들에게 전설로 여겨져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한 조상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절대로 혼인하지 않는 전통이 강하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도는 먼 나라이다. ‘아유타국이 인도에 있다면 2천 년 전에 어떻게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 항해할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써 놓은 책이다.’

한국사에서 서기 1세기는 삼국시대 초기이고 건국 시조들은 모두 신화적 인물로 여겨지는 때이다. 그러나 세계사는 그렇지 않다. 이미 인도에서는 석가, 중국에서는 공자의 시대가 지나갔고 중국과 서역 간의 실

크로드가 개척된 지 백 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허황옥 일행의 항해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자체도 의심을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일축해 버린 사람이 바로 소설가 이종기(李鍾琦) 씨였다. 그는

펜클럽 대회 참석차 인도에 갔다가 아유디아를 방문하고 아요디아에 수많은 힌두교 사원에 가락국과 똑같은 쌍어문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駕洛國 探查>(일지사, 1977)라는 저서에 남겼다. 그 글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김해 김씨로서 대학생 때 호기심으로 수로왕릉을 참배하다가 그 물고기들과 마주친 적이 있다. 30대가 되어서야 만나게 된 이종기씨는 나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아유타국은 실존한 지명이고 가락국기의 허황옥 기사는 픽션이 아니다.’

### 수호신의 상징 ‘쌍어문’

1985년 5월, 나는 KBS TV 제작진들과 함께 아요디아에 도착했다. 그곳은 물고기의 나라였다. 수백 개의 힌두교 사원의 정문마다 쌍어문이 새겨져 있었다. 수많은 힌두교 사원에, 건물 천정에, 경찰의 휘장에, 관용차의 번호판에, 심지어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인력거에 쌍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그림 3) 그 내용은 그 해 ‘간다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소개되었다.

그 후 필자는 쌍어문의 의미를 연구하느라 인도학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박물관장이나 대학교수들과도 상의해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저 물고기가 힌두교의 여러 신상(神像)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대답이었다. 쌍어문은 아요디아 시뿐만 아니라 아요디아가 속해 있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장(州章)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상징인데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다. 2010년까지 인도를



그림 1) 수로왕릉 안향각의 쌍어문. 물고기가 여항 속에 있다. 1980년대

그림 2) 안향각의 쌍어. 1991년. 여항이 없어졌다.



그림 3) 인도 아요디아(아유타국) 힌두교 사원의 쌍어. 이요디아에는 수백 개의 사원이 있고 사원마다 입구와 천정에 쌍어가 그려져 있다.

네 번 방문하였고, 다른 나라의 유적을 답사할 때마다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는 쌍어문들의 위치를 지도에 기록하다 보니 쌍어는 범세계적인 신상(神像)이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수신(水神)을 보호하는 사제로서, 페르시아 신화에는 신목(神木)의 뿌리를 물속에서 보호하는 물고기 두 마리로 여겨지고 있었다. 쌍어는 지역적으로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인도, 중국 양자강 일대, 한국, 일본의 큐슈 지방에 퍼져있는 고대 신앙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란의 페르시아 시절의 영웅인 코로쉬 대왕의 무덤(기원전 558년)을 지키는 2개의 석상이 물고기 껍질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다. 서기전 3세기의 기마민족인 스키타이 족이 타고 다니던 말(馬)의 얼굴과 안장에도 쌍어 장식이 있고,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박물관의 입구 바닥에도 쌍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쌍어문은 2천여 년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상징이었다. 그런 신앙이 다신교인 힌두교에 흡합되었다가 허황옥 일행과 함께 한국의 가락국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로왕릉의 대문에 쌍어문들이 6조(組)나 새겨져 있다. 즉 쌍어를 상징으로 하는 고대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의 어떤 신앙체계가 한국에 전파된 것이다.

그렇다면 허황옥은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직접 항해하여 왔을까 아니면 인도와 한국 사이에 어떤 중간 거점이 있었을까? ㉠

### 김 병 모

고려문화재연구원 이사장, 『허황옥 루트-인도에서 가야까지』의 저자